

## ‘안양천 걷기행사’ 전용 앱 나왔다

‘홈·걷기·QR코드 인증·응모·당첨’ 등 5개 메뉴 구성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배포... 3월 행사부터 적용



구로구가 '안양천사랑 온라인 가족건강 걷기행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구는 주민들이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행사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앱 '안양천사랑 건강걷기'를 제작했다.

“안양천 걷기행사, 더 간편하게 즐기세요!”

구로구가 '안양천사랑 온라인 가족건강 걷기행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안양천사랑 온라인 가족건강 걷기행사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앱 ‘안양천사랑 건강걷기’를 제작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진 기존 ‘안양천 걷기대회’를 지난해 7월 온라인 인증방식으로 전환하고 매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양천 걷기행사는 주민

들이 각자 편한 시간에 안양천을 방문해 ‘구로구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모바일 웹페이지를 켜고 측정지점을 도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거나 다른 앱을 켜는 경우 측정지점 통과가 인증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로구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전용 앱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전문업체와 함께 개발을 시작, 최근 완료했다.

새로 개발된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앱은 사용자가 행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 ‘걷기’ ‘QR코드 인증’ ‘응모’ ‘당첨’ 등 5개 메뉴로 구성됐다.

먼저, 안양천을 방문하고 ‘걷기’ 메뉴의 ‘걷기시작’ 버튼을 누르면 현재위치가 표시되며 행사 참가가 진행된다.

측정지점을 둘 때 자동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QR코드 인증’ 메뉴를 통해 안내 팸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통과를 인증할 수 있다.

‘응모’와 ‘당첨’ 메뉴를 통해 경품행사 참여도 가능하다. 완주 후 응모 메뉴의 ‘안주달성’ 버튼을 누르면 응모번호가 생성되며, 경품 추첨일 이후 ‘당첨’ 메뉴를 통해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앱은 25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를 통해 배포된다.

구로구는 이달 28일까지는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행사를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며, 3월 1일부터는 전용 앱만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웅 환경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앱으로 걷기행사에 참가하며 달라진 안양천의 경치를 즐기고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며 “코로나 속에서도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 ‘구로 수출공단 상징’ 産團工 옛 본사 매각

민간업체에 1188억에 팔려...오피스건물로 바뀔듯

전국 공단 설립·운영 ‘産團工 본부’ 역할

한국 벤처시설 1호 빌딩... 2000년 준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단)의 옛 본사인 구로동의 키콕벤처센터 건물이 팔렸다. 공기업 이전 절차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지 5년 여만이다.

지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키콕벤처센터에 따르면 키콕벤처센터 건물은 지난 1월 온비드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이 성사됐다. 매각대금은 1188억8900만원, 입찰가(1092억6100만원)의 108.8%에 한 민간업체에 낙찰됐다.

키콕벤처센터를 매입한 민간업체는 이곳을 철거한 뒤 신축 건물을 올려 오피스 및 오피스텔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콕벤처센터는 국내 최초의 수출공단이 조성됐던 1964년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 한복판에 들어선 상징적인 건물이다.

당시 구로동 일대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육성을 위한 계획입지로 조성됐다. 이곳은 현재 서울디지털단지 지로 바뀌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이 주로 입주해 있다.

지난 2000년 준공된 키콕벤처센터는 한국 벤처시설 1호 빌딩이기도 하다. 구로디지털벨리를 신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옛 본사인 구로동의 키콕벤처센터 건물이 민간업체에 팔렸다. 공기업 이전 절차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지 5년여만이다.

술 지식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전초기지이자, 전국의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본부 역할을 했다.

키콕벤처센터엔 현재 산단공의 서울지역본부가 남아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이르면 상반기 인근에 있는 넷마블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상 39층 규모의 넷마블 신사옥은 산단공이 보유하고 있던 옛 정수장 부지를 복합 개발한 곳으로 산단공도 지분을 갖고 있다. <김유권 기자>

소중한 가족! 사랑하십니까?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가족사랑을 실천하세요.



“누구나 실명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선제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 소 : 구로역 북측광장지
- 운영기간 : 코로나19 대응 2단계까지
- 운영시간 :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구로구



# 구로구의회 제299회 새해 첫 임시회 폐회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전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2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10일간의 제299회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조례안 등 안전심사를 진행한 후, 19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전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 시설 건립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구로구의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제299회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또 ▲공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앞서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박동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사를 전하고, 이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올 한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발의 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의장(사진)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의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권 기자>

##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발의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발판 마련

구로구의회 정형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18일 제299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형주 의원은 관리부재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기준 및 보조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켰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보조금은 총사업비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노동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세금·노동문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다문화·외국인 세무, 노동 상담서비스

매주 화요일 오후 1~5시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서

“세금 제도, 노동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구로구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노동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은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며 “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문화·외국인 세무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해 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좋은 반응에 따라 올해는 상담 범위를 노동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세무 노동 상담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디지털

로 242, 213호)에서 진행된다. 구청 납세자보호관이 국제·지방세 등 세무 상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법 관련 상담을 맡는다.

납세자보호관은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연계해준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날짜에 맞춰 상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세무 860-3296, 노동 852-7341)을 이용하면 된다.

백종은 감사실장은 “상담서비스가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의 국내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구로보건소 의약과장에 최윤정씨 임용

구로구는 지난 2월 15일자로 공모적인 구로보건소 의약과장에 최윤정(52세·구로동 전 늘푸른소아과 원장)을 지방의무사무관(5급)으로 임용, 발령했다.

최윤정 과장은 지난 1995년 고려대 안암동 의과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소아과학) 과정을 이수하고 2001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구로동 소재 늘푸른소아과과의원 원장을 지냈다.

한편 송은철 전 의약과장은 영전해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으로 근무중이다.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륙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주간 **구로오늘신문**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행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mailto:news121@empas.com)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 이삿짐 포장업체 반드시 ‘허가 업체’ 로

## 3월 이사철 이사시 주의 할 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기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나날들이다. 이사는 몇 년 만에 어쩌다 한 번씩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정기 행사와 같이 때문에 막상 이사를 할 때가 되면 한숨과 함께 포장 이사견적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주의할 점을 알아 본다.



### ◇ ‘손없는 날’ 이사 풍습 아직 남아있어

최소 한달에서 두달 전이나 길게는 석 달 전부터 알아봐서 이사집센터를 예약 한다. 손 없는 날이나 금요일이나 주말 등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보통 손없는 날은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손없는 날에 대한 상식을 알아 본다.

‘손(損)’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한다.

즉, 예로부터 ‘손 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날에 이사 또는 혼례, 개업하는 날로 잡는 등 주요행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손 없는 날’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손’ 있는 날을 제외한 날과, 어느 방향에도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음력으로 끝수가 9와 0일인 날, 즉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해당된다.

### ◇ 이사 견적 얻는 방법

이사 견적을 받는 방법은 업체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앱에서 견적을 받으면 된다. 포장이사 견적을 비교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면, 인터넷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확실하다.

이사견적비교 사이트 인터넷 앱에 들어가 물품 리스트를 체크하면,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하는데 소비자가 업체들을 보고 이 사후기나 제시금액 등을 비교한뒤 두 군데 정도를 선택한다. 그 뒤 업체에서 다시 날짜를 잡아 직접 방문 후 상세 견적을 받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보통 업체가 제시한 견적 금액에서 사다리차 비용이 추가된다.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배 등 인테리어를 하거나 입주청소를 의뢰하고 싶다면, 역시 업체를 알아보고 예약을 해준다. 입주청소는 이사집 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곳에서 하거나 따로 알아봐서 예약하면 된다.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업체를

포장이사 전문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포장이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차량에 한해서는 영업용 차량번호판이 부착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서류의 미비 및 필요차량의 부

이삿짐 포장업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포장이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차량에 한해서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있는지 살펴 봐야 한다.

재에도 불법적인 작업을 강행하는 일부 무허가 업체들로 인해 기존의 정상적인 포장 이사 전문업체 및 허가 이사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번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 ◇ 폐가전 수거 사전 예약·우편물 수취 변경

폐가전 스티커 구입 및 폐가전 수거를 예약한다. 무료로 방문 수거 예약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우편물 수취 주소 변경을 한다.

## 앱 통해 ‘이사 후기’ ‘견적금액’ 등 비교 후 선정 폐가전 수거 사전 예약·우편물 수취 주소 변경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 주차 확보·관리비 확인을

변경되는데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3일 전에 신청하는게 좋다. 우체국에 우편물 이전 신청을 일괄로 해도 되는데 이 서비스는 3개월 간만 해점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 걸 하지 않으면 전 주소로 우편물이 날아간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쓰지 않는 물건은 나눔을 하거나, 중고거래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처분하는 것이다. 잘 쓰지도 않을 물건에 온갖 감정과 욕망을 실어서 싣고 간다 한들, 또 다시 다음 이사 시까지 고스란히 참고행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 ◇ 이사 3일 전 이사 갈 집 엘리베이터 이용 확인을

전입 예정지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다리차로만 이사를 해도 엘리베이터 보양작업을 해야하고 3~10만원을 내야하는 곳도 있다. 이걸 아파트단지 마다 다르다.

그리고 미리 이사할 집의 가구 배치를 구상해 두면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사 당일엔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예약해 두고 이사 갈 곳의 도시가스도 미리 신청해둔다.

또한 분리와 설치가 필요한 에어컨이나 TV등의 가전제품은 이사 날짜에 설치 기사를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삿짐 담당자와 연락해 변동사항은 없는지 미리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 ◇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 주차관리 확보

경비실에 사다리차 이용을 통보해서 주차 자리를 확보해둬야 한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도 이사를 통보하고 반출증을 언제 받는지 확인해둔다. 이사 당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므로 용량이 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귀중품은 따로 직접 포장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이삿짐의 분실이나 파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사진을 따로 찍어두는 것도 좋다. 이사 전

날 속옷 등은 따로 지퍼백에 싸두는 것도 좋다. 이사 당일엔 사용할 물건들은 바로 쓸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 두는게 좋다. 흔히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을 싸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당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이가 당장 필요한 물품과 자동차 키나 세면도구 같은 것이다.

### ◇ 이사 당일 관리비 및 잔금 확인

출발지에서는 관리비 및 잔금을 확인해야 한다. 이사 당일 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전기, 수도 요금과 전세 리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한다. 다음으로 열쇠 인계 및 이삿짐 반출을 확인한다. 출발하기 전에 모든 열쇠와 카드를 인계하고 남아있는 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착지에서는 짐이 안전하게 옮겨졌는지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점검 및 사용량을 확인하고 당일 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 확인 후 미납금을 청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의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방문견적시 포장이사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작업방법, 작업투입인원 등을 안내받고 표준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내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성의한 무허가업체를 걸러내는 방법이라고 한다.

###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면 ‘복비’ 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면 복비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한 빌라에서 2년 계약 전세살이를 시작한 A씨. 결혼하게 돼 내년 3월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의 이사예정일이 계약 기간 만료로부터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일단 법적으로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사를 ‘나가는’ 임차인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다만 현실에선 변수가 많다. 가장 큰 변수는 보증금이다.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A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차원으로 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 계약만료 직전 이사는?...기간·위치 고려해 쌍방합의해야

계약만료까지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통상 이사예정일과 계약만료일이 3개월 이내 차이일 때는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돼 집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까지 1~2개월 남아도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복비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 매물의 위치 및 가격, 주거형태 등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혹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한만수 기자)



# “일상 속 우리웃 ‘생활한복’ 어때요” 구청 민원실 직원 생활한복 입고 근무

구로구청 민원실 직원들이 생활한복을 입고 근무한다.

구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에게 친근함도 주기위해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들의 근무복을 생활한복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직원 30여명은 매주 금요일과 명절 전후로 생활한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

생활한복 근무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구청 방문객들에게 산뜻함도 주기 위한 취지로 이성구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생활한복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호도가 높은 색상과 디자인의 제품으로 선정했다.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성과 기능성도 높였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청을 방문



구로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에게 친근함도 주기위해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들의 근무복을 생활한복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직원 30여명은 매주 금요일과 명절 전후로 생활한복을 입고 근무한다.

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민원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복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작성 도움, 외국어 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 민원실(매주 수요일 오후 6~8시)도 운영하고 있다. <김유권 기자>

# 국내 최대 구로기계공구상가 정기총회 개최 제6대 조합장에 강인덕 현 조합장 선출

국내 최대 산업용품 유통전문상가인 구로동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이하 구로기계상가조합) 제6대 조합장에 강인덕 조합장(67세 신영기전 대표)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2월 26일 오전 10시 구로동 상가 조합사무실 5층 회의실에서 단독 출마한 강인덕 현 조합장의 찬반 투표에서 강 조합장이 무난히 당선됐다.

2명을 선출하는 감사에는 김해식(충해전기 대표)와 허부영(신화기기 대표)후보가 출마, 당선됐다. 강인덕 조합장은 제2-3대 조합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투표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강인덕 조합장

물리지 않기 위해 24~25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속 사전투표도 병행했다. 조합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구로기계공구상가는 지난 1981년 현 시 구로동 상가 조합사무실 5층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대지 7만4천 476㎡(2만2천529평)에 연건평 7만 8천380㎡(2만3천710평) 규모로 4개블럭에 1천775개 업체와 식당 등 지원상가 145개 등 1천920개 업체가 입주, 기계공구와 전기용품 등 5만 여종의 산업용품 전문상가로서 1만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탈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동참

## 분리배출 생활화 약속, 구민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동참 당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9일 집무실에서 생활속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고챌린지’에 참여했다.

‘고고챌린지’는 탈플라스틱 실천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행동과, 해야 하는 하나의 행동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SNS 등에 올리는 챌린지로 지난 1월 환경부에서 시작했다.

챌린지를 진행한 박 의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활성화하는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9일 집무실에서 생활속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고챌린지’에 참여했다.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고 플

라스틱은 씻어 재활용하는 생활습관을 실천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구로구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구민들의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이의걸 강서구의회의장으로부터 챌린지 지명을 받은 박의장은 ‘고고챌린지’를 함께할 다음 주자로 구로구의회 김영근 의원, 정형주 의원, 이명숙 의원을 지명했다. <채홍길 기자>

# 고대구로병원, 최첨단 디지털 PET-CT 본격 가동

고대구로병원은 최첨단 디지털 PET-CT장비 ‘디스커버리 엠아이(Discovery MI)’ 가동을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사진>

PET-CT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검사(PET)와 전산화 단층촬영(CT)이 결합한 진단기기이다. 형태적인 영상과 기능적인 영상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의 조기 진단은 물론 병변과 장기의 미세한 변화를 탐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고대구로병원이 신규 도입한 디지털 PET-CT는 디지털 검출기를 이용하여 기존장비보다 검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진단능력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과 검사시간을 줄여 안전성과 편의성도 확대시켰다.

또한, 차세대 움직임 보정 기술을 비롯한 최신 영상 구현 기술을 탑재하여 보다 정확하고 선명한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분자영상의 정밀분석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권 기자>

www.songlimga.com

#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 구로구 “코로나 속 지난 겨울도 무척 따뜻했네”

## ‘따뜻한 겨울나기’ 총 22억6천만원 모금 목표액 대비 248% 달성... 區 역대 최고액



구로구가 '2021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이 목표액 대비 248%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성금 5억4,034만원, 성품 17억2,440만원 등 총 22억6,475만원을 모금해 구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1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구로구의 '2021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이 목표액의 248%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성금 5억4,034만원, 성품 17억2,440만원 등 총 22억6,475만원을 모금했다”며 “당초 목표액 9억1천만원을 크게 초과하며 구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여러

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구로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모금 운동이다. 기부받은 성금과 성품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쓰인다. 구로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업에 경기 침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청 광장 입구에 실시간 모금 현황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관내 기업과 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참여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특히 구로2동(동장 윤창익)은 지역주민들과 관내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로 전체모금액과 지난해 대비 모금액 증가 등 모두 16개동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수궁동, 3위는 구로3동이 뒤를 이었다. 이성 구청장은 오는 3월초에 기부자 600여명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우수 기부자 60여명에게는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경기 침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성금과 성품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요즘 20세에 대학교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0세 전후한 남자는 약관(弱冠)의 나이이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원복(元服:어른 되는 성례 때 쓰던 관)식을 행했다고 한다. 20세는 약(弱)이라 해서 '갓을 쓴다'는 뜻인데, 그 이미지는 갓을 쓰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은 약하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 만큼 살고 알만큼 알 나이가 됐 으니까 어떠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흔 살을 강(強)이라 하는데, 이에 벼슬길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나이 48세를 상년(桑年)이라

## 나이가 든다는 것은 ㉞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왕성한 나이이라 하여 20세 전후의 나이를 방년(芳年)이라고 한다. 여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꽃다운(芳) 나이(年)를 뜻한다. 30세 나이는 이립(而立)이라고 한다. 공자(孔子)가 30세에 자립(自立)했다고 말에서 유래가 된다. 나이 40은 불혹(不惑)이라 하는데 공자가 40세에 모든 것에 미혹(迷惑)되지 않는다는 데서 유래가 됐다. 미혹이란 말은 어떤 것이 흘러서 정신이 갈팡질팡 한다는 뜻이다.

고 한다. 상(桑)의 속자(俗字)는 '十'자 세 개 밑에 나무 목(木)을 쓰는데, 이를 파자(破字)하면 '十'자 4개와 '八'자가 되기 때문이다. 50세 나이는 지명(知命)이라고 한다. 공자(孔子)가 50세에 천명(天命:인생의 의미)을 알았다는 뜻. 지천명(知天命)을 줄인 말이다. 나이 60을 이순(耳順)이라 하는데 공자(孔子)가 60세가 되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순화시켜 받아들였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본지 회장>

## 구로신협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랑의 쌀' 전달

### 구로5동 및 구로관내 소외계층에 1300만원 상당

구로신용협동조합(이사장 신기혁)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구로5동 동사무소에서 구로신협 임원진과 조합원들이 모금한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10kg 50포를 전달했다. 또한 사랑의 쌀은 구로 관내 소외계층과 구로2·3·4동과 공동, 향동, 오류2동, 경로당·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조합원 가정 등에 10kg 350포 1천3백만원 상당의 쌀을 각각 전달했다.



구로신용협동조합이 지난 24일 구로5동 동사무소에서 신협 임원진과 조합원들이 모금한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10kg 50포를 전달식을 가졌다.

이신기혁 이사장을 비롯, 이 사들과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쌀로 요즘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이웃이 함께 이겨내고 슬기롭게 견뎌 내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신기혁 이사장은 “조합원

들이 십시일반 해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 기부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고 말하고 “한번 인연은 끝까지 간다는 신념으로 올해도 다시 기부하게 되었다. 신협 정신으로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훈훈한 마음이 담긴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앞으로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후원 행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주민 공모 실시

### '이웃 만들기' 등 4개분야 총 11개팀 선발 주제지정공모 최대 800만원 보조금 지원

구로구가 구로2동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참여자의 경험,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4개로 나눠 '이웃만들기' 2개, '일반공모' 4



구로구가 구로2동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참여자의 경험,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해 공모분야를 4개로 나눠 총 11개 팀을 선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주민공모사업 선정자 워크숍 협약식)

개, '기획공모' 4개, '주제지정공모' 1개 등 총 11개 팀을 선발한다. 이웃만들기는 주민모임 형성을, 일반공모는 지역의제 발굴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공모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연계사업이나 마을거점 공간 등 공간활성화를 사업이다. 주제지정공모는 주민들이 마을 관리소, 집수리, 도시농업, 골목길 환경개선 등의 주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공모 분야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팀별로 이웃만들기 최대 100만원, 일반공모 200~300만원,

기획공모 최대 500만원, 주제지정공모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웃만들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3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작성, 이메일(guro2urc@naver.com)로 제출하거나 구로2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면심사, 사업선정위원회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5월 중 구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구로2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70-4218-7335~9, 구청 도시재생과 860-2519. <채홍길 기자>

## 구로구 '세계 여성의 날'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

구로구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온라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월 2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 '구로마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먼저 '키워드 토크쇼'가 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지역 여성활동가 3명이 출연해 일상 속 여성과 관련된 단어를 주제로 토론한다. 3일 오후 2시에는 특강 '지금, 다시 쓰는 여성'이 이어진다.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가 강

사로 나서 세계 여성의 날 역사와 여성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세계 여성의 날 결산 생방송이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3·8 추진위원회 추진단'이 행사 소감, 지난해 활동실적, 올해 계획 등을 발표한다. <채홍길 기자>



# 광명·시흥에 '7만가구 신도시' 조성

## '2·4대책' 수도권 18만가구 공급계획의 39%

### 국토부 "나머지 11만가구 조성 택지도 순차 공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급 택지로 광명·시흥지구 선정됐다. (사진은 대상지 일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40%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신도시급 택지로 광명·시흥지구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1천271만㎡)을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택 호수 기준으로 목표치의 38.9%가 이날 공개된 셈이다.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수도권 공공택지의 총면적을 합하면 기존 3기 신도시(2천986만9천568㎡)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광명 시흥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력 입지로 거론됐으나 지금까지 후보지 명단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4월까지 이번에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외 나머지 1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 신도림 '디큐브시티' 전용 59㎡ 10억 신고가 경신

## 신도림 '동아3' 전용 60㎡도 10억6000만원 거래

### 봄 이사철 맞아 매수세 몰려 상승할 듯

서울 외곽지역 전용 59㎡ 실거래가 추이		(단위: 억원)	
지역	단지	종전 최고가	최근 신고가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9.4(9월)	10(1월 18일)
	동아3(전용 60㎡)	10.5(12월)	10.6(1월 24일)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단지	9.9(12월)	11.1(1월 4일)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9.52(12월)	9.85(1월 23일)
노원구 월계동	윌계센트럴아이파크	7.8(10월)	8.95(1월 24일)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외곽지역 전용 59㎡ 아파트가 '10억원 클럽'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구로구, 노원구, 은평구 등의 새 아파트 전용 59㎡도 인기가 높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외곽지역 매수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18일 10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9월 9억4000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신도림동 '동아3' 전용 60㎡는 지난달 24일 10억6000만원에 최고

가를 기록했다. 호가는 12억원까지 치솟았다. 신도림역 일대에는 지하철 1·2호선이 지나 유동인구가 많다. 역 주변에 웨라톤호텔, 현대백화점 등이 있는 복합시설 디큐브시티 등이 조성돼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신도림동 A공인부동산관계자는 "편리한 교통과 주거 환경을 갖춘 신도림동이 구로구 대장아파트 지역으로 거듭났다"며 "지난해 말부터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꽤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 금천구도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전용 59㎡가 지난달 23일 9억8500만원에 신고가

를 새로 쓰는 등 10억원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곽지역 소형 아파트 상승세는 노원구와 은평구 신축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 전용 59㎡ 호가는 10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신축 아파트 입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된 은평구도 전용 59㎡ 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022년 3월 입주 예정인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전용 59㎡ 입주권은 지난달 12일 10억494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10억4300원에 거래된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59㎡는 11억5000만원대에 호가가 형성됐다. 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 서울 외곽지역 매수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후 시작된 전세난이 잡히지 않으면서 전세 수요가 집값이싼 서울 외곽지역 매수세로 넘어오고 있다. <한만수 기자>

#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한다

구로구가 무주간판(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사업을 펼친다.

구는 "주인 없이 방치되는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영업장 차진 폐쇄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은 간판, 파손이 심해 안전을 위협하는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이다.

무주간판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구청 건설관리과에 신청하면 구에서 현장조사 후 건물주나 상가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받아 철거한다. 철거비용은 구가 부담한다.

문의) 구청 건설관리과 860-2972. <김유권 기자>

# 고척동 중앙로 LED 간판개선사업 완료

## 고산초교~고척동사거리 1.9km 구간 31개 건물, 154개 정비



구로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공업 지역인 고척동 중앙로 일부 구간 간판 개선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사진은 개선사업 전과 후)

구로구가 고척동 중앙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공업 지역인 고척동 중앙로 일부 구간의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을 전개, 최근 마무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중앙로 6(고산초등학교)에서 고척동 사거리에 이르는 양방향 1.9km 구간의 31개 건물, 154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로구는 총 3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점포당 최대 250만원의 간판 제작·설치비용을 지원했다.

새 간판은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LED벽면 간판으로 제작됐다. 147개 업소의

가로·소형돌출·연립형 간판을 교체했으며 무주간판(주인 없는 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안전을 위협하는 7개 업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도 이뤄졌다.

구로구는 2008년 구로디지털단지 일대를 시작으로 주요 도로변 간판정비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간판의 가시성을 높였다. 영세사업자에게 교체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신영기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 경관이 한층 깔끔해졌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도심 속 휴식처 주말농장 750구획 분양

## 공동 4번지 등 6개소 텃밭 마련... 양봉교육장, 편의시설도 갖춰

구로구가 주말농장을 분양한다. 구는 "주민들에게 농촌 자연학습 체험과 건전한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말농장은 공동 일대 6개

구역에 조성된다. 분양 대상지는 총 750구획으로 가구당 1구획(16㎡)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연 6만원이다.

신청대상은 4, 53-2, 70-1, 125, 62번지 등 650구획은 만 19세 이상 구로구 거주 주민이나 관내 직장인, 59번지 100구획은 어린이집, 자활지원센터 등 공동체다.

구로구는 공동 62번지(주말농장 5구역)에 64㎡ 규모의 양봉교육장도 마련한다. 주말농장 참여자에게 벌의 종류, 특성, 벌꿀과 밀랍을 만드는 과정 등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삼, 조리, 호미 등 간단한 농기구를 무료로 빌려주며



구로구가 주민들에게 농촌자연학습 체험과 건전한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 일대 6개 구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벤치, 몽골텐트 등 휴게공간도 설치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3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주말농장이 도심 속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농작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2853. <채홍길 기자>



# 서울시 26일부터 백신 접종

## 1호 접종 요양시설 종사자...3월까지 9만여명 접종

서울시가 26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1호 접종 대상은 요양시설 종사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명이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 전인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맞게 된다.

서울시 1호 접종 대상자는 요양 시설 종사자다. 자치구별로도 1호 접종 대상자를 물색 중으로 중랑구에서는 유린원광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이모씨(63)를 선정했다. 이씨는 26일 오전 9시 중랑구 보건소 1층에서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서울시 2~3월 1단계 접종 대상자는 총 9만6000명이다. 서울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27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2만2615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92.1%가 접종에 동의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후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대응 요원들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백신 직송으로 자체 접종하고, 요양 시설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찾아가거나 시설별 의사 등을 통해 접종을 시행한다.



24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서 위탁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찰 사이드카와 순찰차의 선도 아래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명분은 오는 28일까지 5일간 전국 보건소 등으로 배송되며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4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154만5000여명을 포함해 185만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1단계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이 6월까지 이뤄진다.

7월부터는 50~64세 성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종사자,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서울시 1호 지역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내 다목적 강당에 설치돼 3월 중순부터 가동된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 관리가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정부가 중앙접종센터 1곳을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서울시가 지역접종센터 29곳을 구민회관과 체육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한다. 접종센터는 군·경과 협력해 24시간 관리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방접종은 서울 대학병원에 위탁해 수행한다.

서울시는 3월까지 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7월까지 25개 자치구 전역에 나머지 센터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집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6월까지 3500개소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유권 기자>

# 구로소방서 "산불 대응 태세 강화"



구로소방서는 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따라 산불 화재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고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호암산에서의 산불 대응역량 강화 훈련)

구로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산불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따라 산불 화재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경북 예천과 안동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 23일 오후 호암산에서 산불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최근 성능이 개선된 소방펌프차량이 집중 투입됐다. 이 차량은 펌프와 배관의 내구성을 높여 고압 송수 기능을 장

착했다. 고압 송수는 기존 차량보다 먼 곳까지 소방용수를 방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림화재에 유용하다.

소방서는 고일센터를 비롯한 6개의 안전센터에 고압소방펌프차량을 배치하고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근 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한파특보로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산림 화재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코로나19 '서울형 안심식당' 모집

포털사이트·지도 앱에 위치·전화번호 등 업체 정보 표출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안심식당'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종사자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음식생적 수저관리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참여를 원하는 음식점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하면 된다.

안심식당은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지도 앱(카카오톡)에 위치, 전화번호 등 업체 정보가 표출된다. 개인 접시, 덜어먹는 용기, 수저 포장지 등 최대 15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받는다.

구로구는 선정된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정 조건의 이행을 독려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구청 위생과 860-3233. <채홍길 기자>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1천명 넘었다

## 25일 현재 1,015명으로 일주일새 30여명 늘어

서울 총 2만7857명... 25개구 중 13번째로 1천명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로관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세가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는 1천명을 넘어섰다.

25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1,015명으로 일주일새 30명이 늘었다.

구로구는 24일 하루에 15명이 추가됐다고 밝히고 이 중 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8명은 확진자의 가족,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1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사망

9명, 869명이 완치 퇴원, 137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518명, 해외입국자 274명 등 모두 792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오류동 해적집 관련 36명,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5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528명, 해외 입국 7명, 기타 32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8일 현재 모두 2만7천857명으로 사망자는 373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642명 ▲송파구가 1,550명 ▲관악구 1,341명 ▲강남구 1,268명 ▲성북구 1,211명 ▲노원구 1,195명 ▲중랑구 1,155명 ▲동작구 1,146명 ▲은평구 1,118명 ▲양천구 1,074명 ▲서초구 1,069명 ▲영등포구 1,034명 ▲구로구 1,015명으로 13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동대문구 994명 ▲마포구 939명 ▲강동구 909명 ▲도봉구 862명 ▲서대문구 752명 ▲용산구 736명 ▲강북구 731명 ▲광진구 707명 ▲성동구 700명 ▲종로구 557명 ▲금천구 454명 ▲중구 437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불법광고물 배포업체에 '전화폭탄' 쏜다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 위반 내용 반복 발송

구로구가 불법광고물 배포 업체에 '전화폭탄'으로 경고하는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계속 전화를 걸어 업체의 전화이용을 막는다. 업체가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려 불법광고를 중단토록 계도한다.

업체별 불법광고 적발횟수에 따라 1차 적발 30분, 2차 적발 20분, 3차 적발 시에는 10분 간격으

로 전화를 하며, 업체의 수신 차단을 대비해 매회 발신번호를 변경한다.

구로구는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을 시작해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그 결과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신영기 건설관리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며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구로문인협회 제14대 회장에 윤수아 시인 선출

## 제26차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 만장일치 추대 형식

(사)한국문인협회 구로구지부 (전회장 장동석, 현회장 윤수아)는 지난 2월18일 오후 4시30분 오류1동 소재 '문학의집'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0~2021년 예산·결산(안)을 의결한 뒤 제14대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윤수아 수석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제14대 구로문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역대 회장은 1대 강승원(소설), 2·3대 유만성(소설), 4대 함동진(시인), 5대 정유준(시인), 6대 여명옥(시인), 7·8대 임승천(시인), 9·10대 김익하(소설), 11대 홍춘표(시인), 12·13대 장동석(시인)이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수아 ▲수석부회장 조규남 ▲부회장 최정순·홍영숙·이양임·조운주·전원균·이기홍 ▲사무국장 야마구찌히데코 ▲사무부국장 안혜은 ▲시분과위원장 유성임 ▲수필분과위원장 조



(사)한국문인협회 구로구지부는 지난 2월18일 오후 4시30분 오류1동 '문학의집'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수아 회장

한순 ▲소설 분과 위원장 고선자 ▲문학의집 관장 김복 ▲문학의집 실장 민문자 ▲서울시지회 이사

윤수아·조규남·전원균 등이다. 윤수아 신임 회장은 "먼저 부족한 저를 제14대 구로문협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하고 "구로문인협회와 인연을 맺은지도 15년이 지나 시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사무국장과 부회장을 거치는 동안 구로는 나에게 제2

의 문학의 고향이 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구로에는 많은 선배 문인들이 구로문협을 이끌고 있어 이분들의 조언을 바로 듣고, 지역 정서에 맞는 일을 찾아 매진해 전국의 모범이 되는 한국문인협회 구로지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동석 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문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수아 회장 약력  
-1988년 광명시 주부백일장 입선, 광명문인협회 창립시부터 문단 활동, 문예사조(수필)·지구문학(시) 등단(1997년), 문예

### 초대시

## 사랑의 마중물

시인 송희순



정갈한 옷을 입고  
내가 먼저 찾아가리다  
맞이하리다

꿈틀대는  
기지개를 쳐는  
가끔은 '성숙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고난의 시련을 극복하고  
귀퉁이를 힘들게 돌아서는 너

봄의 전령사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시간이 저울을 녹이는 너는  
마중물이다

작은 사랑의 가치는  
마음을 녹이며  
손을 내미는  
간절한 어머니의 떨림이다

- 송림가·실크로드 대표

사조·지구문학·문학21 편집장(1997~2009), 구로문인협회 수석부회장(2016~2020), 서울림동인회 회장, 지구문학작가회의 이사, 한국문인협회 서울시지회 이

사, 수상 : 경기문학상·한국민족문학상·구로문학상 수상, 시집 : 『바위배기 연가』 『火山祭』 『시 그거 얼마예요』 <김유권 기자>

##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주민·직장인 대상 3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

구로구가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는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기존에는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3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PC, 핸드폰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시민참여, 가치성장, 동아리공유, 구로인생학교 등 4개 분야 19개 강좌로 구성된다.

시민참여 분야는 여성환경운동 단체와 연계해 기후위기시대의 건



텐츠를 쉽게 알려준다.

가치성장 분야는 자기계발 학습 프로그램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젝트' '홀랜드 검사' '스피치 스킬' 등

강, 공기, 제로웨이스트 등 환경 관련된 전문적인 콘

의 강좌를 통해 취업 준비 등 개인 역량강화를 돕는다. 동아리공유 분야는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의 재능나눔을 통해 펼쳐진다. '나를 발견하는 시낭송' '조선의 궁궐 속 이야기' '한지는 만화경' '책놀 이로 마실가자'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삶과 인문학 구로인생학교 분야는 성공회대학교의 우수 자원으로 진행된다.

'건축으로 보는 세계문화여행' '우리 민화 이야기'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쓰기' '일상스트레스 관리법' '읽기만하면 내 것이 되는 한 페이지 미술' '기술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변화' 등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강좌로 이뤄진다.

수강 대상은 구로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평생학습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구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edu.guro.go.kr/lll/>)'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강료는 무료다.(재료비 별도)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2812. <채홍길 기자>

빠른 정보는 로또와 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에세이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등록번호 2019-002126

문예창작의 혁명!  
문학이라 읽고 문예라 쓴다.

#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자격증

문학(文學)은 학문이고  
문예(文藝)는 예술이다.

문학적으로 쓰면 답습이고  
문예적으로 쓰면 창작이다.

세계 최초!  
문예적 글쓰기 작법 완성.

왕초보 기준으로 6개월에 장편소설 완성할 수 있다.

## 한국문예창작진흥원

02-2636-3765



